

투데이칼럼

전북의 광역교통 혁신, 대광법 통과가 정답이다

전북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광법)' 개정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1일 통과했다.

전북 발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이 법안의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는 전북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며,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대 광역권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북은 광역권 내에서도 유일하게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지 못한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은 이미 광역교통망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100만 이상의 도시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대광법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전주는 70년 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6~7대 도시에 드는 대도시였으나 산업화에 뒤처지고 수도권에 밀려 현재는 18위에 그칠 정도로 뒤처지고 말았다.

전주는 도청소재지임에도 인구가 2025년 2월 기준 64만4,073명으로 100만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정부에 의해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되었지만, 대광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여 정작 이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은 광역철도망과 대중교통 연계성이 부족해 도민들은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신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은 김운덕(전주갑)·이춘석(익산갑)·이성운(전주을)·조배숙(국민의힘 비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뒤,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운덕 의원의 안이 반영되었다. 특히, 5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김운덕 의원과 국토위 4선의 이춘

석 의원이 법안 통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광역 시도 간 교통 문제 해결이라는 법 취지와 체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대광법 개정안에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안이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되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광법 개정인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공이 넘어갔다. 다행히 법사위에는 대광법 발의자인 이성운(전주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여당에서 전북 출신 유일한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 소속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거부권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험난한 과제다.

민주당이 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법안 통과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전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이제 더 이상 교통 인프라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다른 광역권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전북은 교통망 부족으로 인해 산업과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대광법 개정안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2036 하계 올림픽도 전북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는 마당에 대광법의 통과야말로 전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를 여는 열쇠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다.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법안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광법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때다.

사설

어느 한 지붕 다섯 회사

전북 임실에 있는 회사 5곳이 지난해 100건이 넘는 수의 계약을 따냈다. 금액은 30억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 다섯 곳의 주소는 모두 같다. 더구나 업체 2곳의 대표는 부부 사이이다.

일부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싸잡아하고 있지만 임실군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임실군은 지역 건설업체 다섯 곳과 120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금액은 30억 원가량이며,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와 용역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다섯 곳 모두 같다. 임실군은 이 업체들과 거의 매달 하투에서 나흘 간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두 업체가 사용하는 1층 사무실의 문은 잠겨 있다. 전화번호도 같다.

지난해에만 80건, 18억여 원을 계약한 두 업체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두 업체는 칸막이도 없는 한 개의 업무 공간을 쓰고 있다. 3명의 대표는 자신들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고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서 같은 공간을 사용할 뿐이라고 말한다.

임실군은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문서상이나 법적으로는 어쨌든 회사가 분리돼 있잖아요. 주소가 같다고 해서 배제 사유가 되거나 이런 사유는 없거든요.”라고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특히 시비를 없애기 위해 2021년부터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1년에 3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 난립과 수의계약 독점 등으로 공정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스모스 여인 김상희 가수

가수 김상희는 1943년 서울 청진동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81세다. 그의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은 2015년 갤럭시 조사에서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 1위를 차지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은 전주 출신 하중희가 작사했다. 작곡은 KBS 관현악단장이자 ‘가요무대’ 지휘자였던 김강섭이 했다. 김상희는 1961년 KBS 전속 가수에 뽑힌 뒤 ‘삼오야(三五夜) 밝은 달’로 데뷔했다.

고려대 법대 재학 중에 가수 활동을 시작하여 최희준(서울대 법대)과 함께 대표적인 학사 출신 가수로 불렸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로 최순강이라는 본명 대신 예명을 쓰면서 한동안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해야 했다.

히트곡으로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울산 큰애기’, ‘내 머리 총각’, ‘경상도 청년’ 등이 있다. 1980년대엔 KBS PD 출신 남편 유훈근이 김대중

전 대통령 공보비서관 출신이었다. 결국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전주 출신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정은 김상희의 시아버지다. 첫째 며느리로 장남 류훈근의 배우자이다. 역시 전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기정은 유정의 사촌 동생이다. 유정은 1919년 전주에서 태어났다.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전주 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전주 상업고등학교 교장과 전주북중학교와 전주남중학교 등의 교장을 차례로 역임하기도 했다.

김상희는 서울 수송초등학교, 풍문여중, 풍문여고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KBS 전속가수, 한국방송예술진흥원 회장,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 KBS재능나눔봉사단 단장, 대한가수협회 고문을 지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정부서 사라지는 ‘흑인 생명도 소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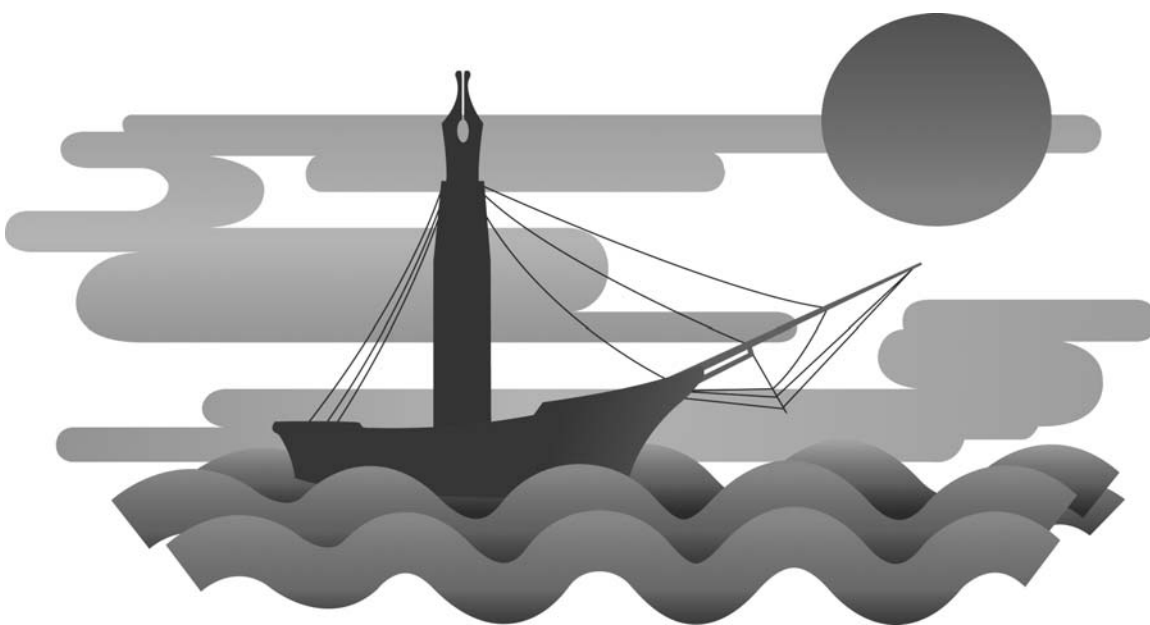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 일대 도로에서 인부들이 ‘흑인 생명도 소중해’(Black Lives Matter·BLM) 보도 블록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부 흑인 활동가들이 “트럼프는 BLM을 결코 지울 수 없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독립 기념일 행사 구경하는 리투아니아 사람들



리투아니아 독립 35주년인 11일(현지 시간) 빌뉴스에서 시민들이 독립 기념일 행사를 구경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1918년 2월 16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 회복을 선포한 날과 1990년 3월 11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해 두 번의 독립 기념일을 갖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